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과 보험



김태형의 보험이야기

- 롯데홈쇼핑 금융사업부 MD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SERI부자연구회 재테크 교수위원
- 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강사
- 저서 (지금 당장 재무설계 공부하라)
(재테크 절대로 하지 마라)
- 트위터: twitter.com/samariain

최근 대구와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 폭력'이 커다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교육 당국은 부랴부랴 대책만을 만들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연세대 사회복지학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청소년 100명 중 48명이 지난 1년간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42명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현재의 학교 폭력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조사 결과로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워질 법도 하다.

학교 폭력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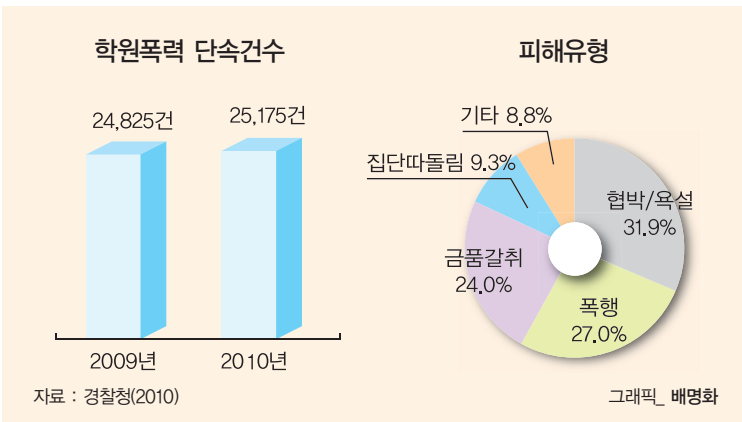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이나 왕따(집단 따돌림)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이들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나 왕따와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면서 이들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들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보험사와 유관 기관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왕따와 관련한 보험 가입은 대개 어린이 보험의 특약 형태로 이뤄진다. 학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면 위로금이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보상 내용이다. 보험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으로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고 왕따 피해자는 10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보상받는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나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원폭력위로금 특약은 관할 경찰서의 '폭력행위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왕따도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왕따로 인한 정신과 치료 등이 입증돼야 한다.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 달라

학교 폭력이나 왕따와 관련한 보험상품은 보험사별로 보상 내용과 조건에 차이가 많으므로 가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은 학교 폭력으로 다





학교 폭력이나 왕따와 관련한 보험상품은 보험사별로 보상 내용과 조건에 차이가 많으므로 가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자전거 사고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나와 있다. 사진 연합뉴스DB

치면 위로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아이사랑보험’의 경우 폭행이나 강도 등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신체 상해가 발생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유괴 또는 납치의 경우 신고시점부터 72시간 이상 경과하면 하루 10만 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성장기에 걸리기 쉬운 특정 전염병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메리츠화재의 ‘우리아이 성장보험 M-Kids’도 학교 폭력 피해 위로비, 미성년자 유괴 및 인신 매매 피해 치료비 등을 지급하며 아울러 자전거 사고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치료비 등도 보장한다.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은 단순 폭행 피해는 물론이고 최근 영화 ‘도가니’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끌어낸 미성년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3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유괴나 납치, 감금 범죄를 당하고 사흘 이상 구출되지 못했을 때에는 90일 한도로 매일 15만 원씩 위로금이 지급된다.

LIG손해보험의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

행위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 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 한화손해보험 ‘아이드림 보장보험’과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은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롯데손해보험의 ‘우리아이 첫걸음 자녀보험’은 폭력 피해를 비롯해 자녀들에게 특화된 위험을 담보한다. 삼성화재의 ‘엄마 맘에 속드는 보험’도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장이 꼭 필요한가? 내지는 ‘그런 몹쓸 사건의 피해자가 된 다음에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폭력과 왕따 사건이 잇따라 보도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면 관련 보험상품에 미리 들어두는 것도 일책으로 여겨진다. 사고 후의 치료에 매우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학원 폭력과 왕따에 더욱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장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보험업계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